

다쓰야마석

다쓰야마석은 연한 색조와 부드러운 질감 등 편리한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예로부터 건축재료로 선호되어 왔습니다. 유리쇄설암(hyaloclastite)이라는 돌은 마그마와 냉수 갑작스럽게 접촉하면서 형성된 미세한 유리질 파편의 집합체로 약 1억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색상은 주로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입니다.

다쓰야마석은 특징과 다쓰야마의 채석장이 가코가와 강을 통해 세토 내해에 인접해 있어, 예로부터 이 지역에서 널리 이용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묘실(고분)에 사용되었는데, 다쓰야마석으로 만든 관은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기에 '대왕의 돌'이라고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건축 기초, 성의 돌담, 불탑, 조각상, 신사의 도리이, 도쿄의 황거 후키아게 어소의 발코니 및 기타 근대 건축물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쓰야마석은 현재도 운영 중인 채석장에서 채굴되며, 일본 국내외의 건축물, 벽, 주택의 기초, 조원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쓰야마석을 이용해 만든 식기와 액세서리, 코스터 등의 소품도 다카사고 지역의 기념품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쓰야마석은 약 1,700 년 전부터 이곳에서 계속 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채굴되고 있는 돌은 일본에서는 이곳밖에 없습니다.